

들꽃편지 645

2022.10.23. 상강호

<https://cyw.pe.kr> 햇별같은이야기

쓰레기 쓰레기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한 시간씩 용수천 강변 약 3km를 왕복하는 걷기운동을 합니다.

얼마 전부터 내가 걷는 길만큼은 깨끗히 하고 싶어서 날마다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주워서 길 끝에 있는 큰 고무통(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쓰레기를 줍다보면 쓰레기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계속 버립니다. 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훑! 던지고 갑니다.



가장 많은 것이 1회용 커피잔입니다. 스타벅스, 디에페, 이데아... 온갖 브랜드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다 버려집니다. 옛날에는 거지들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면 커피는 그냥 매장 안에서 마시세요. 이렇게 밖에까지 들고나와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지요?

그 다음 많은 것은 음료수병, 캔, 생수병, 술병입니다. 휴대용 화장지, 과자봉지, 스티로폼 포장지, 마스크...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고 그대로 던져버리고 간 쓰레기도 있습니다. 나무에 데롱데롱 걸려 있습니다. 담배꽂이는 매일 몇 개씩 줍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가장 안 좋은 담배는 왜 피우는 것인지... 담배꽂이를 길가 풀밭에 훑 던져버려서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한 현장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정말 이해 불가인 쓰레기는 '변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변기를 뜯어다 길가에 버렸을까요? 또 저 '안전모'는 뭘니까? 옆에 안전화도 버려져 있네요. 우선 눈에 띄는 길가의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길옆 풀밭에는 아직 줍지 못한 온갖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날에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꿈은 바라보는 게 아니야.
꿈은 가슴으로 품는 거야.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래.

페이스북에서

참새꽃

참새 떼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
개나리 나무, 모과나무, 배나무.
마당 가 전봇대 전깃줄에도
참새 떼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조롱조롱 달려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꽃송이로 보였지.
아 아,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에
전봇대 죽은 나무에, 꽃들이
꽃들이 피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36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새벽기도 가려면 30분 넘게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것도 조금 불편을 느꼈습니다.
새벽기도에도 강단 화면에 성경 찬송을 다 올리기 때문에
굳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서 걷기 운동하려는 마음도 있기에
성경 찬송을 두고 걸어갔습니다.
교회 가까이 가니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모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찬송을 안 들고 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감히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돌아 왔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걷기운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가장 큰 성경 찬송을 기쁨으로 들고 다니겠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철저한 십자가



토저 마이티 시리즈 17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32쪽 12,000원 규장 2011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편안한 길을 거부하라.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 철저한 십자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장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추종자들의 옛 생명을 끝장냈습니다. 십자가는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옛 본성, 다시 말해 아담의 본성을 멸하여 끝장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끝장냅니다. 십자가 아래서 끝장났을 때 비로소 신자에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2. 보혈의 십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는 다윗도 믿고 시편 32편에 기록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3. 더 깊은 삶

십자가는 우리를 더 깊은 삶으로 인도합니다. '더 깊은 삶'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앞서고 신약의 기준에 더 가까워진 '성령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內住),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삼위일체와의 연합,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4. 홀로 걷는 성도

성도는 홀로 걸어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고독한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분을 따르는 무수한 군중들은 그분의 고독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 해야 할 대가입니다.

5. 완전한 헌신

주님은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요, 능력이시며 속량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것입니다.

6. 전부를 십자가에

부분이 아닌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만히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도 교묘한 자기기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자기에 전부 못 박을 수 있습니다.

7. 십자가를 잡는 순간

십자가를 잡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을 철저히 간섭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간섭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8. 징계와 십자가

징계를 당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義)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은 복이 되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 있는' 비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를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9.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0.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 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고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11. 옛십자가를 지라

오늘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새십자가는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상스럽지 않고 악의 없는 무수한 놀이와 오락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옛십자가는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아담의 교만한 육신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옛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새십자가를 버리고 옛십자가를 다시 져야 합니다.

12. 즐거운 가족

가장 바람직할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이가 회심하면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고령의 조부모부터 가장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족을 때때로 볼 수 있는데, 해 아래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13. 고난의 유익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고난은 지옥 고통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14. 고난이라는 보물

‘성화(聖化)된 슬픔’이라고 부르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값진 보물의 원천이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는 자발적으로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 보물을 캐려는 사람들이 전무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귀할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15. 십자가를 진다는 뜻

한 채석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육신(flesh)은 몸(body)만이 아닙니다. 몸은 육신의 옷일 뿐입니다. 옷을 못 박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신의 자아를 억제하라’는 뜻입니다.

16. 억제와 영안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아를 억제하라는 뜻인데 자아를 억제한다는 것은 자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억제하다(mortify)라는 단어와 영안실(mortuary)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영안실’은 죽은 사람을 두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완전히 억제되었다는 뜻입니다.



17. 십자가의 길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십자가를 잘 알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십자가를 체험했으며, 자주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며,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18. 심판대 앞에

타락한 인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의 복잡한 본성 안에는 선악의 지식, 선을 택할 능력, 그리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성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적 문제, 공의와 심판의 문제, 상과 벌의 문제를 날카롭게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19. 살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굽주린 마음을 갖고 있는 신자라면 죽고자 하는 어거스틴의 갈망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에는 보좌가 있는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자아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0. 안전장치

죽음의 천사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불리는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가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보호합니다.

〈독서일기〉 책을 읽으면서 한 챕트를 200자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요약하거나, 제 말로 바꾸어서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쓴 것입니다. -최용우

귀파기

아내가
 큰딸을 무릎에 얹어놓고 귀를 판다.
 “귓구멍이 이렇게 짹 막혔으니 말을 안 듣지”

아내가
 작은딸을 무릎에 얹어놓고 귀를 판다.
 “귓구멍이 이렇게 작으니 말을 안 듣지”

아내가
 남편을 무릎에 얹어놓고 귀를 판다.
 “애들아 이리 와 봐라. 새로운 동굴을 발견했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中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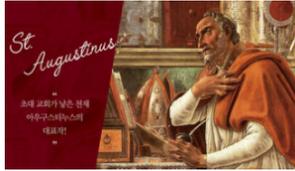
손님9c3 /울 애기도 귓구멍이 짹 막혀서 말을 안 듣나?

란팜배 /^^ 당신도 그러하더이다. ^^

김문수 /아하 귀파기 재미있네요. 아내가 남편을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남편의 귀를 파는 모습이 자연스럽네요. 좋은 시 잘 보고 갑니다.

가을과하늘 /아무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가 봅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 주시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이십니다.. 잘 감상하고 갑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신을 보는 관점 비판



218.정령이 공기로 된 육체를 가지고 높은 곳에 살기에 인간보다

뛰어난 게 아니다.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사람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존재는 정령 말고도 많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인간보다 위에 있던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동물들에게 더욱 우월한 신체 기능을 주셨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이지 '우월성'이 아니다.

219.아풀레이우스가 설명하는 정령들의 성격과 행동

우리는 정령들을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령들에게 그러한 성질을 내려 준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적인 생명체가, 이성적이지만 비참해질 가능성을 지녔고, 감정적이고 실제로 비참하며, 영원한 존재여서 자신의 비참함을 끝내 종결할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신의 명예를 가질 자격이 있던 말인가?

220.인간은 정령들의 악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아풀레이우스는 정령들은 혼의 감정을 지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왜 감정의 혼란과 폭풍에 흔들리는가? 참된 종교는 우리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맞서도록 우리에게 명령한다. 참된 종교는 마음의 온갖 걱정, 정신의 불안, 혼의 혼란과 폭풍같은 것들을 내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감정 따위에 휘둘리는 정령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정신 나간 일인가.

221.인간이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야 신들에게 기도한다고?

아풀레이우스는 정령들은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인간으로부터 신들에게 전하고 그것으로 가져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인간에게로 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음이 정결하고 양심적인 인간, 마술적 사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인간들까지 나쁜 행위를 사랑하는 정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령들은 사려 깊은 인간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사랑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코 사랑하지 않는 '천 가지 사악한 술수'를 아끼는 정령을 기도의 중개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 3

(Love of God)



19.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느 날 책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위 사물에게 귀를 기울였더니 벽시계의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할렐 루야 찬양 할렐 루야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참 신기해서 조용히 귀를 더 기울였더니 컴퓨터 자판기의 딸깍 딸깍 하는 소리가 ‘주님 영광 주님 영광...’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 책상 위의 책, 스펀지, 프린터, 연필꽂이, 컵... 의자, 책장...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인 나만 주뎡이가 쪽 나와가지고 뽀루뽀루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대로 ‘책상이 찬양하고 컴퓨터가 찬양하고 스피커가 찬양하고...’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윗이 저보다 먼저 사물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글을 썼더군요. 시편 148편을 보면 천사들, 별들, 바다의 생물들, 나무들, 동물들, 왕과 왕자들, 남자와 여자들, 노인과 젊은이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바다의 용들까지도 찬양한다(7절)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열심히 기록했더니 작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찬양하라 내영혼아/398쪽> 내친김에 더 썼더니 <천부를 부른 주님 내 입에는 찬양만/1044쪽> 두 권의 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다른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 찬양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영적 시각, 청각 장애입니다. (7286)

20.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나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나는 얼마나 눈먼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사악한 피조물이니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써야지 안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무와 식물과 꽃과, 새와 동물과 물고기와, 모든 벌레와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내 몸에 붙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과, 해와 달과 별과 유성과, 천둥과 번개와, 공기와 바람과 비와 물과, 열과 추위와 불과 땅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세균과 세포와 식물의 포자와 먼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질서와 협력을 생각해 보라! 자연 만물의 모든 조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이렇게 분명한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단 말인가?

여러 직업 가운데 과학자들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보니 자연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외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만든 조물주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 창조주를 보지 못하는 과학자나 철학자나 신학자는 바보일 뿐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9) (7287)

21. 은혜 계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과 은혜와 영광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은혜(恩惠grace)계시를 가톨릭에서는 성총(聖寵), 기독교에서는 과거에 은총(恩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은혜(恩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국어사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여되는 신의 특별한 사물(賜物). 본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으로부터 받는 자애 행위를 은혜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내며,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들을 찾아내며, 죽은 시체들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영혼을 건져내며, 지옥문 앞에서 나를 데려다가 천국문 앞에 세우며, 단두대에 목이 들어가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 단두대를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과 사랑과 순종과 가르침과 모범과 고난과 증보와 죽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으니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롬5:8,10) (7288)

22.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돌프 아이히만은 수백만명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죽일지를 고민하다가 ‘가스실’을 만든 자인데, 전쟁이 끝난 후 그를 체포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무척 왜소한 덩치에 유순한 성격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유대민족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세하고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600만명을 가스실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지으며 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늘 최악 가운데 악하게만 사는 사람도 없고, 늘 선하게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만 심판하신다면 인간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지은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되었더라도,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죄가 용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인류 구원 사역을 대충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호세아13:6) (7289)

23. 은혜로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쉬운성경 요한일서3:1-2)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외항선원이 되어 인도양을 항해하던 어느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가끔 친구 따라 교회에 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때는 불교에 관심이 있어 절(백양사)에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준 불상 부조 접시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어떤 힘이 저를 강하게 이끌어 “오! 하나님... 당신이 믿어집니다.”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불교 관련책들과 부조를 “부처님, 여기서 고향이 가까우니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저기 저 등대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하면서 인도양 바다에 살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먼저 계시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 계시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무거운 죄 짐에 눌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벌벌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7290)

24. 영광의 하나님(Glory be to God!)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과 은혜와 영광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Glory be to God!)’ 영광(榮光)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빛이(光) 꽃처럼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榮)입니다. 헬라어로 doxa(독사, 성경에 166회 나옴) 영광이란 ‘거룩한 빛’ 또는 ‘신비로운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저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반사되어서 백성들이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 하더니”(출34:30)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17:1-2)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사4:5)으로도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인간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91)

25.하나님의 아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면 인간은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신학자 Richardson은 “영광이란 하나님의 지상(地上) 임재(臨在)를,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인식한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했습니다. Bengel은 더 명료하게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The Glory is the Divinity manifests.)라고 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서 풍기는 ‘아우라’ 때문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웬지 모르게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큰 권위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빛이 나거나 물리적 힘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성품이나 실력, 인격 자체가 아우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우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에게서 느끼는 아우라는 인간의 언어로는 ‘영광’이라는 단어 외에는 도무지 표현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6:13) 여기서 영광은 그분의 그분다우심, 그분의 모든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롬1:23) 그래서 Calvin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개 기독교 신문에 매주 칼럼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은 클릭을 안 합니다. ‘맛집 탐방’이나 ‘총회장 선거’의 클릭율에 비해 20%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딴 곳에 있습니다.(7292)

26.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빛, 구름, 연기 같이 물리적 양상으로만 나타나거나 단순히 종교적 관념으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지성의적 반응이 수반되는 영적 교감으로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에 대해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게 되는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눅21:27) 그날에는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보던 사람들은 그 익숙함에 반가울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 날에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성도들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1:7)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3:2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거듭난 신자'라고 합니다. 거듭난 신자만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교통함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비로소 그 영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신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몰락은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신자'가 되지 못한 채 세속신앙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7293)

27.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나,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임재(臨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는 나의 삶과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위대한 능력, 신비한 섭리, 완전하신 인도, 또 장래에 보여주시실 비전 등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저절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에는 커다랗고 풍성한 방석이 항상 놓여있습니다. 언젠가 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도 모르게 퍽!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딱딱한 방바닥에 쓰러지면 다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항상 주변에 방석이나 얇은 담요를 놓아둡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외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신자의 심령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그 마음에 스며드는 어떤 '기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이 자신의 심령과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분 뜻대로 순종하여 그분의 일에 쓰임 받고 싶어지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이보다 더 이상 다른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군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면 자연히 그분에 대한 경외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7294)

28. 믿음과 임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바라고, 감각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임재(臨在)하셨다고 하면 눈앞에 무엇인가가 보이고 나의 감각이 짜릿짜릿 한다면가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뿌연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것을 상상합니다. 한번은 친구가 “용우야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나다며?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 하고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의 스크린에 하나님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아도 그것을 '꿈'으로 여기거나 '헛것'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동물'과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믿음'이 없고 오직 '본능'만 있거든요.

만약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면 나의 영혼은 동물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는 '자기만족'은 할 수 있을 지언정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액자 속에 있는 그림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천국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신앙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7295)©최용우



떨어진 벚꽃(사진:최용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비학산을 화암사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화암사 근처 숲속에서 늙은 치즈 고양이 한 마리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파리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딱히 다치거나 약을 먹은 것 같지는 않다.

힘겹게 고개를 들고 지나가는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고양이를 위해 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잘 가시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교회 가는데 동네 주차장에 세워놓은 우리 차 뒤쪽으로 벚꽃이 많이 떨어져 있다. 어젯밤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것 같다. 이 또한 꽃의 마지막 순간 아닌가.

떨어지는 꽃을 위해 내가 해 줄 것이 딱히 없다.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 주는 것이 꽃을 위한 나의 최선의 배려이다.

나의 아침시간

오늘은 30분이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의 핸드폰은 4:50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때에....' 찬송이 쿵쾅쿵쾅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진다.

오줌 누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뜨거운 물 한 컵 마시고, 혈압 재면 5시10분이 된다.

컴퓨터를 켜고 정성은 사모님의 피아노 연주 45분짜리를 켜는 순간 <예수어록> 말씀묵상이 시작된다. 찬송 연주가 다 끝나기 전에 묵상도 끝나야 한다.

말씀 한 절의 본문을 각종 한글 성경 15권에서 찾아 쓰고 묵상하여 원고지 2장 분량으로 정리한 다음 게시판에 올리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면 대충 45분이 지나간다. <예수어록>은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하루도 안 빼먹었다. 외박을 할 때도 그 시간에 핸드폰으로 글을 올리고 카톡을 발송했다. <예수어록>이전에는 <따뜻한 밥상>성경 전체를 7년 동안 묵상했었다.

<예수어록>묵상을 마치고 나면 6시가 되거나 6시 조금 넘는데 재빨리 <햇별같은 이야기>발송을 시작한다. 미리 만들어 놓은 .html 문서를 ftp를 통해 업그レード 하고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티스토리, 다음,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20여곳과 <기독교한국신문> 햇별같은이야기 코너에 칼럼을 올린다. 이 과정을 아무리 빨리해도 30분은 족히 걸린다.

그 사이에 일어난 아내와 함께 <매일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가 없는 대신에 10분짜리 예배를 매일 드린다. 아내의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 10분이 넘기도 한다. 거의 햇별같은이야기와 매일예배를 왔다갔다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매일예배>를 드린 후에 아내가 아침밥을 푹푹!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하고 부른다. 부르면 1초만에 "넵!" 하고 달려가야지 조금이라도 미적대면 아침부터 큰 소리 난다. 밥을 최대한 빨리 먹고 7시 정각에 약 먹는 시간 알람이 울리면 '혈압 약'을 복용한다.

그 전에 <햇별같은이야기>발송 작업이 끝나면 아내와 커피 한잔 먹을 시간이 잠깐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간중간 작업을 계속한다. 7시 30분에 아내가 출근하는데 차를 점검해 주고 들어와서 내일 발송할 <햇별같은이야기>편집 작업과 글을 쓰면 오전 8시가 된다.

그 사이에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해야 하고 가끔 아내가 설거지를 못할때는 설거지도 해야 한다.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은 일년내내 거의 변함이 없는



나의 아침 풍경이다. 나의 직업은 <햇별같은이야기>글을 써서 발송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이미 하루의 일과를 끝내버리는 셈이다.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기도와 책읽기와 글쓰기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발송 작업이나 운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저녁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다.

나의 10년

드디어 <들꽃편지4권>이 도착했다. 들꽃편지 1호부터 약 500쪽 분량으로 합본집을 만들다 보니 일부러 맞춘 것처럼 1호(1990.1)-215호(2000.1)까지 4권이 되었다. 나의 27살에서 36살까지 10년의 기록이 2천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신학 공부, 결혼, 아이 둘을 낳고, IMF 시기에는 안산의 주물공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 <들꽃편지>를 발행하며 나의 존재를 기록했던 것 같다.

문서 사역도 1995년을 기점으로 종이에서 PC통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다. 문서를 일일이 스캔으로 떠서 파일로 변환시키다 보니 합본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감개무량하다.



고구마 간식

작년부터 라면, 패스트 푸드, 과자, 밀가루 음식 다 끊었다. 그런데 너무 안 먹으니 배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자꾸 꼬부라져 할 수 없이 빵과 칼국수를 조금씩 다시 먹기 시작했고 치킨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먹기 시작했다.

밀가루와 패스트 푸드를 안 먹으니 고구마와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 내가 고구마를 많이 먹는 것을 알고 장모님이 올해는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잔뜩 주셨다. 고구마 값이 생각보다 비싼데 좋은 간식거리가 많이 생겼다.

아내가 고구마를 써서 거실 찻상에 올려놓으면 뭐가 먹고 싶을 때 몇 개씩 먹는다. 좋은 것부터 찌라고 해도 아내는 조금 상한 것부터 다 먹고 좋은 건 나중에



먹자고 한다. 나는 항상 좋은 것부터 먹어야 한다고 하고 아내는 안 좋은 것부터 먹자고 한다.

두꺼비

저녁에 골목길 한가운데 두꺼비가 엉금 엉금 기어간다. 두꺼비가 길에서 어슬렁 거리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언제 차에 치여 푹! 터질지 모른다. 노인정 앞 길바닥에 지금도 종이장 처럼 달라붙어 있는 두꺼비의 흔적이 남아있다.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온다. 두꺼비의 걸음으로는 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두꺼비를 발로 툭툭 차서 길가로 옮겨놓으려고 발을 때는 순간 두꺼비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기어간다. 우와! 두꺼비가 이렇게 빠른 파충류였나?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의 속도로 외장과외장 기어서 옆에 있는 대문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내려오는 차보다 훨씬 빨랐다. 설마 두꺼비는 내가 자기를 발로 밟는다면가 공처럼 차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았겠지?



베짱이 여치

개미는 피약벌에서 뽀뽀 땀을 흘리며 겨울에 먹을 곡식을 준비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하고 춤추며 나무 그늘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배가 고프는 베짱이는 개미집을 찾아가 먹이를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으니 겨우 내내 춤이나 추시오” 하고 문을 꽂고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용우 책<꼬랑지달린 이솝우화>125쪽 개미와 베짱이

사실 베짱이는 봄에 태어나서 가을에 죽는 곤충인데... 우화 속 베짱이는 배짱도 좋네. 워짜 겨울까지 살아남았을까?

호박냉쿨에 핀 호박꽃 사진을 찍는데 꽃 속에 식사중인 베짱이가 있었다. 베짱이는 게으른 곤충이 아니다. 베짱이는 꽃의 잎이나 꽃가루, 꿀잎을 먹고 사는 초식 곤충이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75회 비학산258 (일출봉252m) 2022.9.7

▲제576회 비학산259 (일출봉252m) 2022.9.14

▲제577회 비학산260 (일출봉252m) 2022.9.20

고추골 길을 통해 비학산 올라가는데 ktx가 지나가는지 땅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비학산 땅속으로 터널이 뚫려 기차가 다니는데 미세하나마 오랫동안 땅이 흔들리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이나 나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는데 상수리나무 아래에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자라는 것 같은 잎사귀가 눈에 들어왔다. 상수리나무는 아니다. 저 자리에서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다람쥐가 씨를 물어와 저기에 묻었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온 씨가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다. 마치 상수리나무가 “비바람을 다 막아 줄게 나에게 기대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578회 비학산261 (일출봉252m)

비가 온 뒤라서 버섯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피어있는 시간이 2시간으로 짧아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망태버섯’ 사진을 찍었다. 망태버섯은 ‘버섯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화려한 버섯이다. 신부의 드레스같다 하여 ‘드레스버섯’이라고도 한다. 망태를 2시간 정도 펼쳤다가 접기 때문에 ‘하루살이 버섯’이라고도 한다. 2022.9.29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상강(霜降)-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은 이슬이 서리로 변하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제 곧 매서운 추위가 닥치고, 새벽에는 얼음이 얼고, 눈도 내리겠지요. 흔히 매섭고 엄한 것을 '서리'에 비유합니다. '추상(秋霜)같은'의 추상은 가을의 서릿발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맛샤'는 하나님의 추상같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맛샤'는 일종의 최후통첩입니다. 맛샤 다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추상같은 '맛샤'를 듣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이 알록달록 예쁜 옥수수의 이름은 '유리보석옥수수'입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를 원했던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미국인 Carl Barnes에 의해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옥수수는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포니족과 체로키족)이 재배한 다양한 품종의 혼합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니 곧 길거리에서 볼 날도 멀리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Futura @futura.sciences.fr

③도서출판 소식

- 신간 <들꽃면지5권 참꽃> 528쪽 21900원 -10월19일 출간
 - 신간 <일상의 기쁨>(시집시리즈10권) 210쪽(울컬러) 13400원 -10.4출간!
 - 61권 <들꽃면지4권 동자꽃> 510쪽 21300원 -9월13일 발행
 - 60권 <들꽃면지3권 산부추꽃> 508쪽 21100원 -8월 30일 발행
 - 59권 <웃긴일기>(일기시리즈13권) 396쪽(울컬러) 23800원 2022.6.29.발행
 - 58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3> 398쪽 17000원 2022.5.27
 - 15권-24권<주보자료집1-10권>(재판)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6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9월 재정결산

2022년 9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민학 김상식 김상식 김준경 무명 박근식 박금자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옥진 정호숙 조운학
조정욱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장사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32분이 2,8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10.22일 현재 7357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3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새로 나온 책

들꽃편지 제5권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5권-참꽃호
최용우 편집 528쪽 21,9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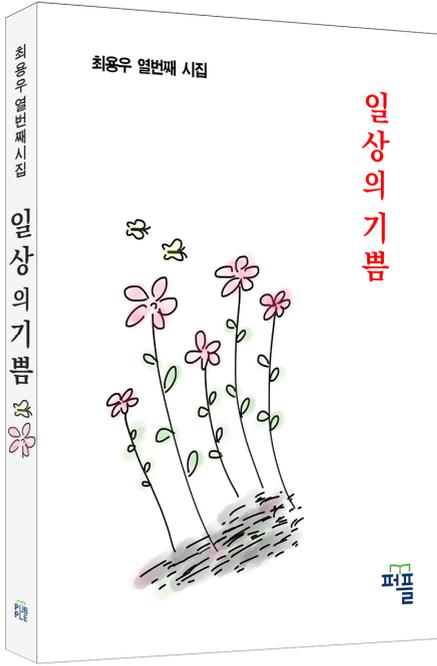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32년 동안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으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5권〉은 216부터 231호까지 모았습니다.

시기는 2000년 2월부터 2001년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제가 IMF 기간 3년 동안 직장생활을 마치고 안산 선부동에서 들꽃피는교회 개척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인천 청천동 믿음교회로 잠시 갔습니다. 약 6개월 후 드디어 온 가족을 이끌고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있는 '갈릴리마을'로 이사하여 환대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들꽃편지〉를 한 달에 두 번씩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4일**
새로 나온 책

평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詩.

일상의 기쁨

-최용우 열번째 시집
최용우 210쪽(겉리) 13400원
교보문고 퍼플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기쁨

인간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만나고 보는 주위의 평범한 일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사고(思考)하는 '나'이다.

숲속을 걸어가는 시인, 고고학자, 나무꾼은 완전 다른 세 가지의 숲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며 두리번거린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詩.

- 1장 만남 -너를 만나니 좋아 -48편의 시
- 2장 행복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 -48편의 시
- 3장 감사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48편의 시
- 4장 위로 -예수만이 참된 위로자 -48편의 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온갖 가짜들이 미혹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288편의 순수복음 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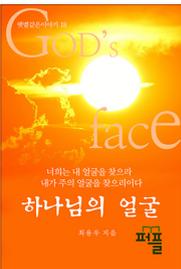
가장 큰 선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형성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형통 글
 12,100원 326쪽 펴플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펴플



나도 할 말 있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펴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 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 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펴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쑈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5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